

“전북 농어촌유학 신청하세요”

전북교육청, 12일까지 2학기 유학생 모집... 12개 시·군 47개 학교 배정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학기 전북 농어촌유학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전북 외 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으로, 1년 이상 유학 생활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 10명 이상 60명 이하의 농어촌 지역 초·중학교 중 거주시설이 확보된 학교를 모집한 결과 도내 12개 시·군 47개 학교를 농어촌유학 운영학교로

선정했다.

전북 농어촌유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학부모)은 5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울 외 지역 학생은 전북교육청 교육협력과 이메일(jeonju@kakao.com)이나 팩스(063-220-9406)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18일 전북 농어촌유학 누리집에서 가배정 결과를 확인한 뒤 19~30일까지 사전방문

기간 동안 유학학교 및 거주시설 방문해 면담을 진행한다. 이후 7월 2일까지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7월 7일 농어촌유학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전북 농어촌유학의 특색 프로그램으로는 △익산 응포초 골프 특성화학교 △정읍 이평초 생태숲놀이 △진안 조림초 아토피안심학교 △임실 대리초 농사직설 △임실 지사초 양궁·필봉 농악 △순창 동산초 국악전승학교 등이 있다.

전북 농어촌유학은 2022년 하반기 시

범운영 이래 매년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학기 기준 204명의 학생이 도내 작은 학교에서 농어촌 유학을 하고 있다.

농어촌유학 운영학교도 2022년의 4개 시·군 6개 학교, 2023년의 8개 시·군 18개 학교에서 2025년에는 10개 시·군 28개 학교로 확대됐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유학은 단지 전학이 아니라 삶의 전환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적 대안”이라며 “도시 학생에게는 자연과 공동체를 경험할 기회를, 농촌 학교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상상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4~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서 '2025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놀이·배움의 공존 디지털 세상 속으로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오늘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5일 이틀간 미래교육연구원서 '2025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진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정보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에듀테크 체험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선발된 89명의 학생이 총 20개 종목에 참가한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모두의 마블 △닌텐도 스위치 배구 △FC 온라인 경기 등 8개 종목이 진행되며, 정보경진 분야에서는 △아래 한글 △과워포인트 △로봇코딩 △스마트 검색 등 12개 종목이다.

특히 'AI 화가가 된다' (국립특수교육원), 코딩 로봇 체험, AR·VR 기반 체육 콘텐츠 '디딤', AFSW 체험관, 미술 체험 등 학생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 실감형 콘텐츠실, 미래형 기자재 등을 구축해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과 진로 탐색을 적극 지원해 왔다.

FC 온라인 종목에 참가한 전북푸른학교 1학년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며 친구들과 팀워크를 맞추는 게 힘이 들었지만, 오늘 경기를 통해 실력이 늘었다는 걸 느껴서 뿌듯했다”며 “전국대회에도 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통해 디지털 역량과 사회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신성장 거점 삼아 특색 있는 곳으로” | 전북대-남원시, 글로벌캠퍼스 추진상황 점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일 오후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남원시와 공동으로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 설립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양오봉 총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캠퍼스 설립 추진현황과 향후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캠퍼스 예정지인 옛 서남대 폐교 부지 현장을 방문, 실제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남원 글로벌캠퍼스는 정부의 지역혁신 정책인 글로벌캠퍼스30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와 남원시가 공동으로 설계하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 캠퍼스 모델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교 시설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는 캠퍼스로 주목받고 있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남원 글로벌캠퍼스는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유치를 비롯해 한국어 학당 운영, 공유형 창업 공간, 유학생 정주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포함된 통합형 정주 캠퍼스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곳에 들어설 △글로벌캠퍼스학과(연간 100명), △한국어학과(연간 80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벌 캠퍼스 예정지인 옛 서남대 폐교 부지 현장에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최경식 남원시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명), △K-엔터테인먼트학과(연간 70명) 등 3개 학과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양오봉 총장은 “남원 글로벌캠퍼스는 단순한 대학 캠퍼스가 아니라, 글로벌 교육 거점이자 지역 재생의 핵심

인프라”라며 “교육·문화·산업이 융합된 이 캠퍼스가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글로벌캠퍼스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삼아 교육, 창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캠퍼스로 완성하겠다”며 “전북대와 긴밀한 협력으로 성공적인 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10일까지 졸업작품전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학생들의 '제 15회 졸업작품전'이 4~10일까지 삼성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작품전을 위해 학생 36명이 지난 5개월 간 매일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지도교수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각자의 고민과 사회문제를 반영한 공간 설계와 모형을 완성했다.

주거공간, 복합공간, 복지공간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뉜 학생들의 19개 작품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진지한 접근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이 학과 박희준 교수, 최병숙 교수, 강춘원 교수, 정미선 교수 등은 매일 학생들과 소통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김하은 졸업작품준비위원장은 “이번 전시는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우리들의 첫 번째 반란을 채우는 자리”라며 “그동안의 배움과 노력이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졸업 작품 아카이빙이 후배들에게도 유용한 자료이자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http://2025.jnu-housing.com/)을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수소에너지고,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완주군 전략산업 수소에너지와 함께 비상... 재도전 끝에 거둬

완주에 위치한 수소에너지고등학교(교장 송현진)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특성화고-교육청-지자체-지역 기업 간 협약을 맺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교육-취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정책 사업이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첫 도입 당시 10개 컨소시엄(학교-교육청-지자체-기업)이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전국 15개 지역의 37

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해 이 중 10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수소에너지고 컨소시엄은 이번엔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지역 산업 중심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수소에너지고는 올해 재도전을 준비하면서 완주군의 전략산업인 수소에너지 산업에 맞춘 학과 개편과 학교명 변경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기존 기계·전기 중심의 교육과정을 수소에너지 분야로 재구조화하며 지역 전략 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재학 중 현장실습과 직무 교육을 받으며, 졸업 후 지역의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3: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전북대 우수에너지고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문형식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수소에너지고등학교가 지역 산업을 이끄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학교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교육청도 지속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올해 학교안전주간 공모 수상작 발표

최우수 '오늘의 안전, 내일의 안심, 매일의 안녕' 등 10편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학교안전주간 공모전' 수상작 10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10개 작품이 접수됐다.

포어 부문에 97개 작품이, 동영상·사진·포스터 등 시각 콘텐츠 부문에 13개 작품이 응모했다.

그 결과 포어 부문에서는 △최우수: 오늘의 안전, 내일의 안심, 매일의 안녕!(마령초3 정지예) △우수: 배워요 안전수칙! 높여요 안전의식! 늘려요 안전학교!(이리 영동초3 윤도경), 느슨해진 안전끈! 짧아지는 생명끈!(이리영동초2 문태영) △장려: 행복을 전



안전은 지켜요!
 이는 인사 안녕하세요! 안전하세요!(옥천초 권도희 교사), 안전학교로 전북교육의 꽃이 핀다(고창초 김동규 교사)가 선정됐다.

시각 콘텐츠 부문에서는 △최우수: 안전을 지켜요(주생초4 윤정홍) △우수: 팔짱끼고 동행~ 함께라서 더 안전해요(황등초 윤재우 교사), 무엇

이 보이십니까? 당신이 버린 양심 누군가는 울고 있습니다(대성중3 정지운) △장려: 안 전하지 말고, 안전합시다!(군산신동초6 정창모), 도로 안전! 마음 안전!(고창초3 김예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에는 소정의 상품과 교육감상이 주어진다. 해당 작품들은 교육청 누리집, 동영상 콘텐츠, 캠페인 홍보물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참여한 공모전을 통해 학교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며 “선정된 수상작들은 향후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 자료 및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차세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 선정

전북대 양자시스템공학과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가 차세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차세대 원자력 및 융복합 분야의 민간 수요에 부응하는 현안 해결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양대, 경북대, 제주대, 충남대와 컨소시엄을 구성, '다목적 차세대 용융원자로 융복합 인력 양성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향후 5년간 선박 추진, 수소 생산 등 다목적 용도로 주목받고 있는 용융원자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전북대 양자시스템공학과는 이번 사업에서 공대 고온플라즈마센터, 기계시스템공학과와 협력해 용융원자로의 설계 및 안전성 평가 분야 전문 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특히, 열수력·노물리 연계 체계 구축, 해양 환경 원자로 안전성 평가 및 통합설계 안전성 평가 등 고도의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 등 정부출연연구소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GS에너지와 같은 민간 기업과도 산학협력을 진행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책임자인 이윤희 교수(사진)는 “이번 사업 선정은 전북대 양자시스템공학과와 공과대학 내 여러 교수진의 협력과 전문성이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용융원자로의 설계 및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과 국가 에너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양자시스템공학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해 플라즈마 및 방사선 공학, 핵융합 시스템, 입자 가속기 시스템 등 미래 첨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올해로 11년째 배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교원해외파견 단기해외교육봉사 운영 대학 선정

전주대, 3년 연속으로... 라오스 현지서 글로벌 교육 실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5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단기해외교육봉사 운영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선정으로 우수한 글로벌 교육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전주대 해외봉사단은 하반기에 한 달간 라오스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수파누봉대학교(2주)와 파사띠파티중등학교(2주)에서 한국어, 수학, 과

학·기술(ICT), 문화, 예체능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며,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해 한국의 선진 교육 모델을 현지에 전파한다.

특히 수파누봉대학교와 협력해 해당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파사띠파티이 중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통역 및 운영요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분은 교육봉사의 현지 적합성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우수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